

동양의 정원 : 변화하는 관점과 지평

The Oriental Garden: Changing Perspective and Horizons



金 顯 燮 / 정희원, 영국 셰필드대학 건축학과 (박사후) 연구원
Kim, Hyon-Sob / (Post-doctoral) Researcher, University of Sheffield
chu_lian@yahoo.co.kr

영국 셰필드대학의 조경학과에서 지난 1월 18일 “동양의 정원”(The Oriental Garden)이라는 주제로 일일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Garden History”라는 유력한 저널의 편집장을 맡았던 안 우드스트라 (Dr. Jan Woudstra) 교수가 주관한 이 행사는 그가 지도하는 네 명의 아시아 학생들로부터 유발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출발점은 동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관점으로 보면 극동에 대한) 서양인의 오래된 관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정원에 대한 담론은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17세기에 이미 야기되었고, 윌리엄 템플이나 윌리엄 챔버 등이 가졌던 이에 대한 관심은 영국 픽취레스크 정원에 중국의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도 유발시켜왔다. 한편, 일본이 개방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자포니즘이라는 일본 예술에 대한 열정적 관심이 대두했다. 원예나 조경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 1910년 런던의 웨퍼드 부쉬나 1915년 헤이그의 클링헨다엘에서 보듯이 유럽 현지에도 일본식 정원이 조영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른다.

작년 여름부터 계획되었던 이 컨퍼런스에 필자도 “유럽의 건축과 정원에 끼친 동아시아의 영향”에 관한 발표 요청을 몇 차례 받았으나, 바쁜 일정상 청중으로서의 참여에 만족해야했다. 이 행사는 모두 아홉 명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안 교수의 학생들이 각자의 연구주제로 발표를 했고 (윤상준, “한국 전통정원의 형태요소”; 리카이란, “팔경(八景): 고대 중국의 경관 인식 전통”; 까오레이, “중국 원명원 복원에 대한 접근법”; 자오지쥔, “중국 도시공원의 전통과 근대적 이상”), 초청 연사로 질라겟 (Whittle College), 프란시스 우드 (British Library), 그리고 알리슨 하디(Leeds University)가 참여해 각각 “1850-1950 사이 영국에 조영된 일본식 정원”, “태고 시대 중국 정원의 재창조”, 그리고 “명나라 후기 중국정원의 변천”에 관해 발표했다. 이 이외에

도 “일본정원회”(Japanese Garden Society)의 회장인 그레암 하드만이 일본 조경가인 시게모리 미레이의 근대정원에 대해, 비엔나 (University of Natural Resources and Applied Life Sciences)의 비안카 리날디가 17-18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기록한 중국정원에 관한 텍스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컨퍼런스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인 연구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유럽의 근대건축가들은 동양의 정원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이다. 구조나 공간론적 관점에서 근대주의자들에 대한 동아시아, 특히 일본의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연구가 되어왔으나, 구상성(具象性)을 배제하려했던 그들에게 동양정원의 구상적 요소는 그다지 기껍지 않았을 것이다. 일찍이 이탈리아 미래파 건축가들은 중국이나 일본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 (1914), 국제주의건축은 지역성보다 보편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로피우스가 일본의 가레스산이 [枯山水] 정원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추상성을 발견하고 경탄한 사실에서 우리는 근대건축과 일본정원과의 한 교차점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의 필자에게는 유럽 내에서의 동양정원을 다룬 질 라겟과 비안카 리날디의 발표가 가장 흥미로웠다. 하지만 ‘정원’으로부터 출발한 그들과 ‘건축’으로부터 출발한 필자의 관심사에는 역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정원 자체에 중점을 둔 그들에 비해 필자는 건물과 정원, 혹은 실내와 외부공간의 관계성에 더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관심은 “한국의 전통정원에 대한 서양 학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일본-한국-중국의 순서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윤상준 씨의 조선시대 정원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은 두 사람의 일본정원에 대한 발표 후에 이루어졌다.

그는 “중국의 원림은 그 규모에서 거대하고, 일본의 것은 작고 인공적인 맛이 강한 반면, 한국의 정원은 중용적이고 가장 자연에 가깝다”는 한국 내에서의 일반적 담론을 전제로 출발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조선정원의 자연스러움 안에도 정원 구성의 주요소로서의 방지(方池)나 화계(花階)에서 볼 수 있듯, 그리고 취병(翠屏)을 비롯한 여러 장식적인 요소에서 보듯이 인위적 형태요소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굴도’나 ‘규장각도’ 및 ‘사계풍속도병’ 등 여러 조선시대 회화 속에 나타난 디테일을 논거로 제시했다. 필자는 그가 제기한 미묘한 논점이 한 단계 걸러진 영어를 매개로 얼마나 정확히 서양 학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양한 사진과 그림, 그리고 문헌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에도 장구한 역사를 통해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된 정원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티타임을 통해 몇몇 참가자들은 조선정원의 방지가 명나라 이전의 중국정원에 관한 문헌을 연상 시킨다 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화계에 세워진 굴뚝의 장식적인 효과와 이것이 정말 온돌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관심은 있으나 서양언어로 쓰인 한국정원이나 건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이 분야에 선뜻 발을 내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거대한 현수막이나 화려한 포스터도 없었고, 하루라는 짧은 시간, 일반 강의실에 사십 여명 남짓이 빼곡히 참여한 조촐한 행사였다. 그러나 꼭 필요한 연구자들이 각지에서 초청되어 발표했고, 모두들 진지하게 경청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 컨퍼런스마다 제한시간으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 각각의 논문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극히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점심시간이나 티타임을 통해 참여자들 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사진 1. 프랜시스 우드 박사의 고대 중국 정원에 관한 발표 장면



사진 2. 컨퍼런스 안내 포스터

있긴 했으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발표 직후의 ‘공공토의시간’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한편, 이 컨퍼런스를 기획한 안 교수의 의도에서 자신의 학생들을 향한 깊은 배려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이러한 자리를 통해 자신의 학생들과 그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사실이다. 제자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준 것, 스승이 보일 수 있는 귀한 본이 아니겠는가.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안 교수는 또 한번 같은 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다음번의 모임도 기대해보자.☐